

2016년 12월 5일, 추자면 대서리 대서리노인회관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,  
원용순(남, 1933년생, 추자면 대서리)

**[제보자]** 저희들이 전설로 들은 거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는 전부 다 무동력이니까 풍선인데, 그니까 저희들도 들었으니까 걸 뭐. 예, 민질 앓을라 그러는데 요즘 이렇게 들으면은 전복이 날라다닌다, 날라다닌다고. 그 풍선이 오다가 그 전복 떼를 만나가지고 전복이 날라와서 다 붙으는 바람에 그 베가 결국 침몰됐다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.

**[조사자]** 자세히 말씀해주시면, 조업 끝나고 올 때?

**[제보자]** 조업이 아니고.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짓는 것 가지고 일 년을 못 먹잖습니까? 이제, 멸치라든지, 갈치나 고등어라든지 뭐 잡아가지고, 또 미역 여러 가지 거를 잡아가지고 강진이나 해남으로 물물교환하러 갑니다.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했다가 가을에 가가지고.

그때는 전부 다 초가집 아니에요. 여기는 벼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벼짚도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강진이나 해남 가가지고,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지붕을 이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가서 사 와야 되고, 이제 일 년 먹을 치 쌀, 보리, 콩 뭐 할 거 없이 찹쌀,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와요.

준비 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. 자기 집에 베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럼 자기 아는 베에다가 부탁을 합니다. 뭐 미역 요만큼 보내고, 멸치 요만큼 보내고, 뭐 잇인 거 전부 보내면서, 이거는 쌀 한 말, 이거는 보리 한 가마, 이걸 뭐해서 전부 적어주면은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인제 교환하는 거예요. 교환해다가 갖다 주는데 이거는 인자 매년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.

그래서 이 분들이 일 년 사는 거예요. 추자도 사람들이 일 년 사는데, 그렇게 해가지고 물물교환하러 다니는데 그 풍선이 갔다 오다가... 오는 길에.

**[조사자]** 어느 바닷쯤 될 거 같습니까?

**[제보자]** 그러니까 이쪽에 범섬 쪽 있잖습니까. 그쪽에 들어오다가 거기서 그런 걸 당해가지고... 전복이 날라오더니 기냥 전복 떼가 모아가지고 붙어버리니까... 전부 주로 풍선이니까 제대로 뭐...

**[조사자]** 아, 가라앉아 버렸다?

**[제보자]** 예,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.

**[조사자]** 그러면 그 전설이 있으면 뭐 조심하라는 말은 없...

**[제보자]** 그렇죠. 조심하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전복 떼가 날아다니고 있다. 그 후에는 그런 일이, 요즘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물으니까 실지 전복이 날라다닌대요.

• 핵심어 : 추자도, 전복, 범섬, 풍선, 해남, 강진, 조업